

[주제 발표 II]

##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방안

남상준(청주교육대학교 교수)

### 1.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

우리 나라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제도적인 뿌리는 제 4차 교육 과정(1981)으로 소급된다. 이 교육 과정은 총론의 '운영 지침'에서 환경교육이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각론의 사회과 및 자연과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 5차 교육 과정(1987)은 총론에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는 것'을 '교육 과정 구성의 방향'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관련 교과들을 중심으로 한 분산적 환경교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은 제 6차 교육 과정(1992)에서 '학교 재량 시간' 및 '특별 활동' 그리고 학교별 특설 시간 등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은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나아가 사회 환경교육과의 연계하여 우리 나라 환경교육 일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나라의 국민학교 환경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달성하여야 할 과제 및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에서는 우리 나라 국민학교 환경교육이 이룩한 업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업적

우리 나라의 국민학교 환경교육이 도입, 발전 과정에서 이룩한 주요한 교육적 업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가장 큰 업적은 그 도입과 발전 과정이 자발적, 풀뿌리(grass-root)적이었다는 점이다. 교육 혁신에 관한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 행정의 중앙 집권화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혁신적 교육 내용들은 대체로 '권력-강제적 접근'이었다는 점 때문에 채택률과 지속성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학교의 환경교육은 혁신의 근원에서 중요한 요소인 '결정적인 다수', '결정적인 발단' 모두가 자발적인 연구, 실천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이후 채택 단계(초기-후기)까지 자발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자발성은 중등 학교보다 상급 학교 입시 부담이 적고, 환경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인 통합성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국민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국가·사회의 문제를 학교 교과목화 혹은 교육 내용화하는 것을 주저해 왔던 기왕의 우리나라 사회 및 교육적 풍토 혹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자발성은 환경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 정착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둘째, 환경교육의 주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가정-학교-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학교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일부분으로서 계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계속성의 원칙은 한 개인에게 通時的으로 적용된다. 즉,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교육은 모든 연령 집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同時的인 계속성도 가져야 한다. 즉,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환경교육은 전 국민에게 동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적 계속성의 원칙이 환경교육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종의 증폭기(multiplier)로서의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다. 환언한다면,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참여, 실천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 효과의 내면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인 慣行으로 정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학교 교육의 속성 중의 하나인 학부모, 곧 지역 사회와의 강한 인간적, 지역적 유대는 환경교육과 같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 교육의 연구·실천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풍토와 토양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정 및 지역 사회의 학교에 대한 강한 연계는 교육 일반에서 두루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환경교육에서 그 필요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셋째, 새로운 교육 내용의 도입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연구·개발·실천이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연의 필요가 없다. 전공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귀속감은 새로운 교육 내용 혹은 교과목의 수용에 대하여 주저하게 만드는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국민학교는 교사진의 특성 상 환경교육을 도입,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전국현장연구대회' 논문의 편수로 대변되고 있다.

표. 전국현장연구대회 1등급 입상 환경교육 관련 논문 편수(1988-1994)

연도	합계	교과별						학교급별		
		국가·사회	과학교육	실업·가정	특별활동	생활지도	특수영역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8	1	1						1		
1989	1				1			1		
1990	2	1	1					2		
1991	1		1					1		
1992	8	2	2			2	2	8		
1993	13	2	2		3	6		12		1
1994	17	3	2	1	4	6	2	15	1	1
합계	43	9	8	1	8	13	4	40	1	2

이 대회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 관련 논문이 입상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전국 1등급으로 입선한 논문들 중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은 총 43편인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는 대구 폐놀 사건과 제 6차 교육 과정에 의한 환경과의 독립이 있었던 1992년 이후 대폭적인 편수의 증가와 관련 교과의 확대가 이루어진 점, 학교 급별로 보면 총 43편 중 40편이 국민학교급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3.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방안

이제 우리 나라 국민학교 환경교육은 정착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현행의 국민학교 환경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달성하여야 할 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정체성, 적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환경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국민학교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일반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며, 내용은 어떠한 인간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은 이론적 연구·개발보다 현장의 실천이 앞서 이끌어 온 느낌을 주고 있다. 더우기 여타의 교과목 혹은 교육 내용과 달리 교육계 외부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학교 교육의 교과목 편제에 교과목과 내용으로 자리잡게 된 환경교육의 경우 사회 운동과 다른 교육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자리잡은 국민학교 환경교육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公論化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통합적 조정 및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이다.

현재의 국민학교 환경교육은 독립 교과목이 아니며 이른바 분산적 접근 방식으로서 관련 교과들을 중심으로 한 교과 교육, 「학교 재량 시간」 및 「특별 활동」 등을 통한 선택적 교육, 사회 환경 운동·교육 기관들과 연계된 「그린 스카우트」, 「환경 캠프」 등의 자발적 조직, 그리고 산림청의 「녹색 학급」, 「자연 학습원」 및 기업체들의 견학 프로그램 등 수시 교육의 유형들이 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제공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이 크지 않은 점, 프로그램 내용의 중복성, 프로그램의 질적인 평가의 미흡 등 아쉬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일반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적인 상설 환경교육 센터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교육 과정 개정에서 국민학교에 환경 독립 교과목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 정책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서는 기존의 환경보전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시범학교들의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교육 대학에서의 직전 교육 및 현직 연수에서의 환경교육 관련 내용의 강화이다.

환경교육은 새로운 교육 영역으로서 교사들의 이에 대한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전 및 현직 연수에서 환경교육 관련 강좌 및 내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 관련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학교마다 상이한 모습의 직전, 현직 환경교육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직전 교육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반응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교사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직전 환경교육 연수가 충실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언하고 싶은 방안으로는 최근 5. 31 교육 개혁안 및 교육 대학교들의 교육 과정 개정 움직임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수 전공제의 활용이다. 또한 현직 연수에서도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자격 연수나 일반 연수에 환경교육을 편성해 넣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교육 특별 연수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화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인식, 지각의 범위, 그리고 환경교육의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를 고려한다면, 국민학교 환경교육에서는 지역화라는 환경교육 일반의 원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화된 환경교육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및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환경이 지니고 있는 教育 資源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파악이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들이 환경교육 교재들을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역화의 이념에 충실한 교재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재들은 지역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지역화일 뿐 내용의 선정이나 조직,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지역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자기 향토, 지역에 대한 귀속감(topophilia)은 지역화의 의의를 대변한다. 모든 학교급의 대부분의 통합적인 교육은 지역(사회)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의 원칙 중 환경 내에서의 교육 또한 지역 학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화된 환경교육 교재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 유추된다. 환경교육을 통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환경에 대한 건전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이를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실천력을 갖춘 민주 시민이다. 이러한 민주 시민의 양성에서 지역화된 환경교육 교재의 역할은 지대할 것이다. 환경교육의 내용은 의사 결정 능력과 실천력의 발휘를 위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의 제공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自己 時·空間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4. 환경교육의 시대에의 전망

우리 나라 국민학교 환경교육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도입되어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할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公論化를 통한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정체성, 적합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기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신설될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교육 대학에서의 직전 교육 및 현직 연수에서의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환경교육 내용 및 교재를 지역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가 환경 그리고 환경교육의 세기일 것이라는 전망을 해보면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말하고 싶다.

[토론 II-1]

## [주제 발표 II에 대한 토론]

송영호(원주 명륜국민학교 교장)

### 1. 서 론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제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의도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환경교육의 핵심은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행동을 배워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가치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의 생활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 지식 위주의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실제로 환경보전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산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누적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고 내면화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생활습관의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 2.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 1) 교육과정 운영면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은 독립과목이 아닌 관계로 인하여 관련교과들을 중심으로 부분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의 양과 학습 성취도를 염두에 둔 학습목표에도 환경에 대한 내실적인 내용은 기술되거나 이를 다루려 하는 교수-학습자 간의 인식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교육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적 할애 및 체제의 재구성이 어려운 형편이다.

#### 2) 자료활용면

효율적인 교수-학습활동은 교수-학습 자료의 질과 양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질과 그 효과도 환경교육에 관련되는 학습자료의 확보와 활용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자료의 양은 극히 부족하고 그 질도 매우 열악하며 일부 자료의 구성도 단편적, 과학적 지식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쉽게 접하며 활용할 수 있기에는 부담감을 갖게 하고 있다.

#### 3) 교수-학습면

환경보전교육의 목표 및 체계적인 지도내용과 그 방법에 대하여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에서는 자체 개발 및 재구성으로 독자성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학습에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상황, 문제의 복잡성, 학문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편적 지식위주의 교과 내용과 지도방법은 지속성의 결여로 인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내면화가 어려운 형편이다.

### 3.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방향

환경교육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어린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대한 심성을 길러 주고 환경문제 해결에 공헌케하려는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과정이 경험중심으로 전환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 현장의 참여와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것은 현행 교육과정 시간운영 범위 안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교육의 내용으로는 환경에 대한 전 영역에서 지역적 문제의 작은 문제 해결 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생활주변 속에서 환경보전의 내용을 찾아 알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교수-학습의 내용은 문제와 쟁점으로 짜여져 실험, 답사, 토론 등으로 어린이 중심의 탐구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환경학습자료 제작의 전문 기구를 설치하여 질적으로 개선되고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양산되어 학습 현장에 쉽게 보급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 환경교육의 여건 조성으로 「환경교육장(場)」, 「자연 학습장」 등의 환경관련 특수 場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환경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4. 결 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이 미흡한 현 사회 상황에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의 쾌적한 삶을 이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육에서 부터 시작해야 함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현장의 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환경교육의 활로를 찾아 보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를 학교에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그 내용을 어린이 스스로 알게 하고 탐구하는 학습함으로써 제도적 장치의 환경교육이 아닌 어린이가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질적으로 향상된 학습자료의 개발과 그 보급이 확대된다면 학습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환경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교육에 대한 특별한 시간과 재원이 확보되어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어린이들의 환경보전 의식의 변화와 내면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토론 II-2]

## [주제 발표 II에 대한 토론]

김대성(부산 명서국민학교 교사)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방안을 간명하게 잘 요약하였는 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업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논지에는 동감이지만, 현장교육에서의 대응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및 다소의 이견(異見)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 도입과 발전과정에서의 자발적·풀뿌리적 요소들이 전(全) 학교현장에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야흐로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점이다.

둘째,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강화에 학교가 주도적 역할을 해 왔고, 그 결과로서 가정-학교의 연계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가 아동들의 학교 환경교육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노출된다.

셋째, <표>의 전국현장연구대회 입상 논문 편수가 시사하는 바는 크지만, 이를 순수한 동기로만 평가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국민학교 교사들의 가시적인 연구 노력 및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등에 비해 행·재정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측면을 빠짐없이 잘 정리·지적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는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의거리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학교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국민학교 환경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기에도 정착기에 진입하기 보다는 과도기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학교 환경교육의 정체성·적합성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의 환경교육 연구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향으로는 인지적 영역 가운데서는 지식보다는 기능에, 정의적 영역 가운데서는 태도보다는 감수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프로그램의 통합적 조정을 위해서는 상설 환경교육 센터로서 시·도 교육청→지방단위 교육청→단위학교 환경주임으로 조직적인 연계체제 확립이 요망된다. 시설의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실(특별실)을 두고 기존의 교재원을 환경교육장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 요망된다. 장기적으로 환경독립교과목을 신설하고 「사회과」와 「자연과」의 주당 시수를 1시간씩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넷째, 교사에 대한 직전교육을 위해 교육대학 커리큘럼에 환경교육 강좌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자연과 연수」와 동일한 맥락에서 「환경주임 연수」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하자.

다섯째, 셋째에서 논의한 상설 환경교육 센터로서의 연계체제가 지역화의 기능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제 6차 교육과정에 환경교과목의 독립 교과화가 달성되지 못한 점이 무척 의아스럽게 느껴진다. 오히려 중등에 비해 더 절실하고 독립교과로 탄생될 수 있는 보다 양호한 토양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당한 점은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제5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교 재량 시간」 및 「특별활동」 그리고 교과별 특설시간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을 선언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선언적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꽤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제6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다소나마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장 직무연수시 환경교육의 강화 ② 분기별 학교행사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③ 환경주임제의 내실있는 운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하겠다.